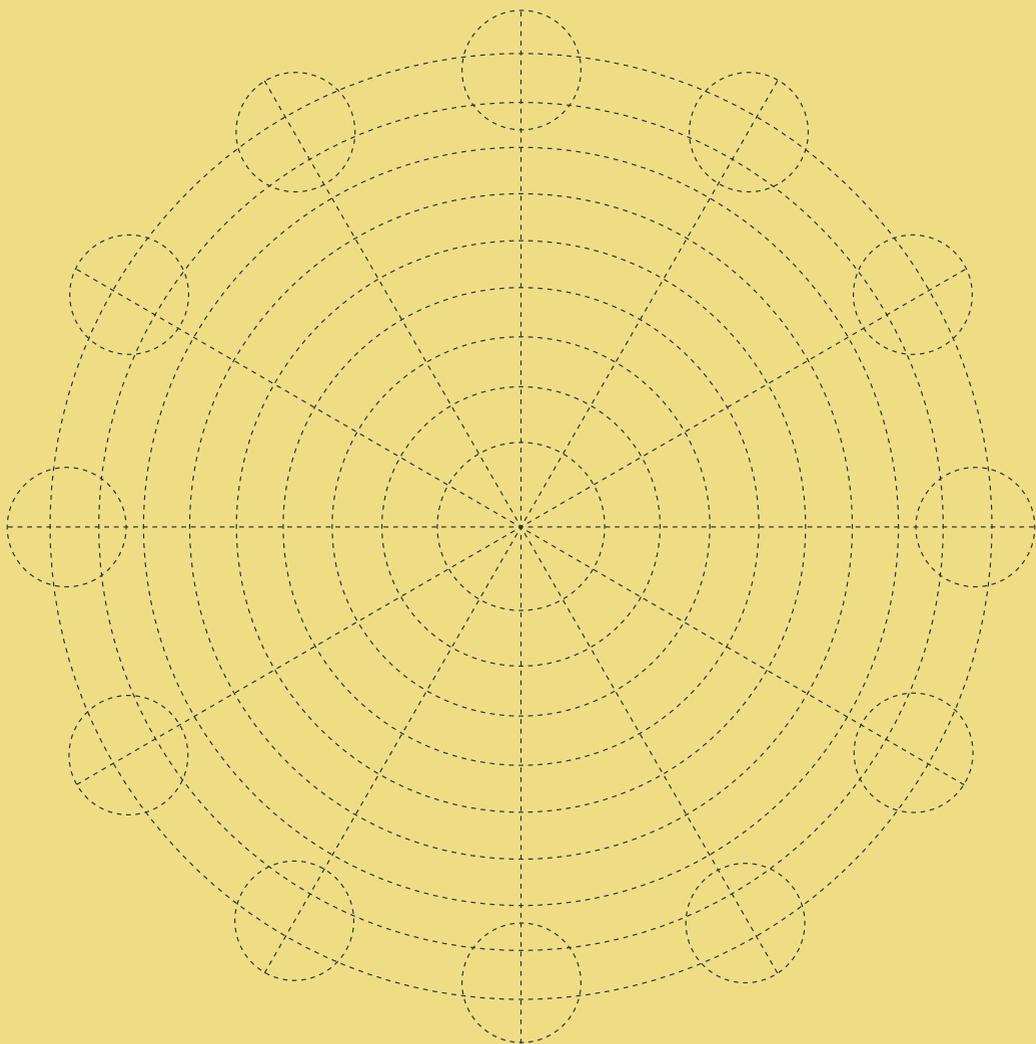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

I	기후위기와 공연예술	
1	제안	6
2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에 대하여 : 워킹그룹 논의를 정리하며	8
3	기후위기 와중의 문화예술 : 문화예술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하여	20
4	지속할 수 있는 공연예술	28
II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	
1	안내서의 입장	36
2	안내서의 제안 영역과 기본 방향	40
3	공연 프로듀싱	46
4	세트와 무대 제작	52
5	조명, 음향, 영상	58
6	무대소품과 의상, 헤어, 메이크업	62
7	공연 운영과 관객 커뮤니케이션	66



I 기후위기와 공연예술

- 1 제안
- 2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에 대하여
: 워킹그룹 논의를 정리하며
- 3 기후위기 와중의 문화예술
: 문화예술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하여
- 4 지속할 수 있는 공연예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 등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더이상 지구생태계와 공존할 수 없게 된 기후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과 예술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 안내서라면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던 사람이 행동을 안내받고
행동하던 사람이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게 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마땅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요령 있는 설득과
구체적인 행동을 잘 범주화한 목록,
효과성을 키울 수 있는 기술적인 제안을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서는 그 꿈을 충실히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재료들로 기후위기와 공연예술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상상해 보길 권합니다.

당신이 관객을 '설득'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관객과 고유한 관계를 맺어 온 것처럼
이 안내서도 당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도
고유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저마다의 가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다양각색의 가설이 공유되고,
동의할 수 있는 행동의 목록이 하나둘 현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 안내서의 꿈이고
동료로서 마련한 제안이자 초대입니다.

2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에 대하여

: 워킹그룹 논의를 정리하며

최준영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안내서 제작을 위한 워킹그룹 논의에는 연구진 외 김현우(탈성장파 대안연구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성지수(콜렉티브 텡굴), 임현진(독립기획자), 전문환(연출가), 정채영(국립극단) 등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재난’이라고 얘기되는 위기 여럿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기상변화로 확 다가온 기후위기, 금리인상에 치솟는 물가까지 겹친 경제위기, 혐오가 만연하고 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사회적 위기, 그리고 끝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대유행까지. 다양한 위기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또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강조되는 가치가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사회 전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한 요구이자 바람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주목받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환경-경제-사회가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와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의 위기라고 인식되는 각각의 위기는, 사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법으로 얘기되는 지속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해법 또한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함께 고민하고 실험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공연예술 창제작의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
안내서와 사례집을 만드는 이번 연구에서도

***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북반구 선진국 이전 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선진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가난한 나라와 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선진국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이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공동체, 조직,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의 피해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만 부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속가능성의 시작은 '기후정의'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연예술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방안을 먼저 실천해 온 예술가들은 이미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상호영향과 복합적인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예술의 지속가능성은 비단 창작과정에서의 탄소배출 감소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시스템, 노동, 주체들 간의 관계, 극장의 환경과 운영방식, 관객의 이동방식 등 경제적-사회적 요인들과 심지어 공연예술 미학까지도 깊숙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연구진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기후정의'는 공연예술의 지속가능성 실천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자 기준이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구스타프 프라이타크 Gustav Frytag,

1816~1895가 정리한 드라마의 5막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프라이타크 피라미드)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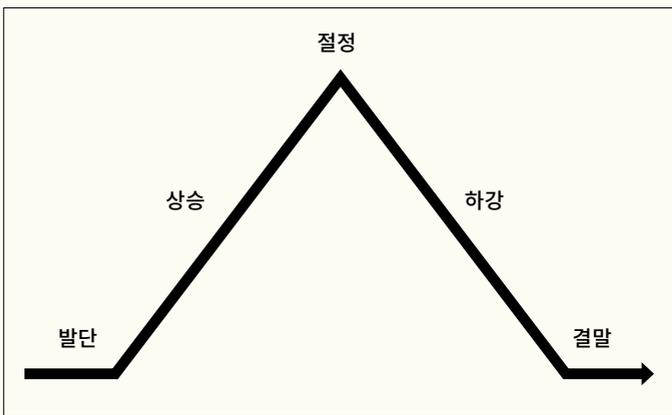
극작가이자 번역가인 샤타 빌로드 Chantal Bilodeau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한 이런 극작이론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야기 구조이며

권력을 획득한 소수가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의



프라이타크 피라미드 (Freytag's pyramid) 출처: 'Why I'm Breaking Up with Aristotle', 22 April 2016. <https://howround.com/why-im-breaking-aristotle>

세계관을 유지하는 데 동원된 이야기 구조입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짙어진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도 같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인간을 중심(꼭지점)으로 한 수직적인 세계관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중입니다. 샤타 빌로드는 말합니다.

“불평등과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적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윤리적일 수 있을까요?

피라미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시대의 공연예술은 지금 새로운 이야기 구조, 새로운 미학적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술의 힘

한편, 탄소배출 수치에만 집중하는 '탄소환원주의'나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절감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기후우울증'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김현우 선생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공연예술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관객의 이동과 극장의 시설입니다. 탄소배출의 양으로만 따지면, 공연에 관객이 오지 않는 것이 탄소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탄소환원주의 carbon reductionism**

기후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기후위기 문제를 온실가스 감축 차원으로 축소해버리는 기술중심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탄소환원주의는 탄소포집과 같은 기술적 해결, 탄소시장에서 상쇄배출권을 구매하면 '순배출'이 감소한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는 생태계의 자연적인 탄소흡수력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탄소배출을 온전히 감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기후우울증 Climate depression**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바뀌지 않는 사회를 보며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기후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 실천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극장에서는 공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을 줄려면 공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탄소배출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 탄소배출이 문제이고, 그러려면 탄소배출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탄소배출량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자칫 공연예술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은 한편으로 탄소 수치가 가릴 수 있는 기후정의의 문제, 구조와 관계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수고, 노동이 적절한 보상도 없이 누군가(예를 들어, 막내 스태프)에게 전가된다면, 탄소배출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탄소 수치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힘, 예술의 역할’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공연예술 창제작에서 탄소배출 양을 줄이는 일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갖는 (양적 기준으로 볼때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히 ‘양’ 만으로 따진다면 대규모 발전소나 산업시설과 비교해 아마도 훨씬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의 사회적 영향력은 훨씬 큼니다.

예술은 과학보다 더 사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또 예술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에 영감을 주며,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더 많은 예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많은 공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극단체인 ‘피그풋 시어터 Pigfoot Theatre’는 2018년부터 자신들의 공연 창제작이 탄소중립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활용품으로 무대세트를 만들고, 작품 안에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고, 모든 창제작 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기록하면서 기후에 대한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그풋 시어터’ 홈페이지에 공연 창제작 과정에서의 탄소절감 방안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방식이나 이동, 조명과 음향, 종이 사용 등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무엇을 기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진 왼쪽부터)
피그풋 시어터
출처: ‘피그풋 시어터’
페이스북
기후를 위한 행동
출처: ‘기후를 위한
행동’ 페이스북

* 피그풋 시어터 홈페이지
<https://www.pigfoottheatre.com/>

2014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서커스 단체인 ‘기후를 위한 행동 Acting for Climate’도 국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¹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은 해결되기 전에는 명확하게 공식화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피에 하인Piet Hein의

1 ‘바닷길 따라, 지속가능한 예술의 미래를 향해’(박지선, 2022.1.17. 아르떼365), ‘공연 때도 탄소발자국 줄이자 ... 문화계에 부는 녹색바람’(이강은, 2022.4.23. 세계일보)

정의에서 영감을 얻었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한 퍼포먼스로는 바다 위 배에서 펼쳐치는 서커스인 <Into the Water>(2019)와 <리플즈 Ripples>(2022) 등이 있습니다. <리플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발트해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서커스 공연입니다.²

호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마르테CLIMARTE’와 비영리 퍼포먼스 콜렉티브인 ‘클라이맥츠ClimActs’도 기후위기를 알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입니다.³ 이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예술가, 단체, 콜렉티브 등이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예술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공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안내서와 함께 만든 사례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비상사태:리허설>(전윤환 연출)은 2022년 국립극단에서 제작한 연극으로, 공연 창제작의 모든 단계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2022년 ‘기후위기와 예술’을 주제로 한 창작극을 제작하기로 한 국립극단이 전윤환 연출에게 작품을 의뢰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후비상사태:리허설>은 친환경적인 공연 제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코드라마투르그’를 선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적 접근과 작품의 창제작 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2022, 서울)_ 기후노트: 본문 <http://archive.ntck.or.kr/front/view/document/D004053>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2022, 서울)_ 기후노트: 붙임 <http://archive.ntck.or.kr/front/view/document/D004054>

2 ‘기후를 위한 행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tingforclimate.com)와 페이스북([facebook.com/actingforclimate](https://www.facebook.com/actingforclimate))을 참조

3 클라이마르테 홈페이지 www.climarte.org / 클라이맥츠 홈페이지 www.climacts.org.au



전윤환 작·연출,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사진 ©국립극단 제공

병행했습니다. 기획단계에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었으며, 국립극단의 창고를 뒤져 무대, 의상, 소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쇄물을 줄이기 위해 대본은 전자파일로 공유하고, 연습기간 동안 배우와 스태프의 이동수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기간에는 관객들의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립극단 차원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많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을 기록한 자료, 프로그램북 등도 모두 공개되어 있어, 이후 공연 창제작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과 축제는 일찍부터 기후위기의 영향력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축제가 모두 취소되면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대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축제의 방향, 축제의 전면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재개된 축제에서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춘천마임축제>⁴는

4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춘천마임축제 68~79쪽

전기설비의 모듈디자인, 푸드코트 내 일회용기 사용금지, 화약을 쓰지 않는 불꽃놀이 등을 실험하였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디젤발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⁵은 식음료 부스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시외-시내 셔틀버스 운영과 함께 인쇄물, 제작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의 축제에서 총 19,850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하였고, 서울과 수도권의 관객 중 30%가 왕복으로 유료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실험의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극복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실험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연예술의 현장에서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도전과 실험을 응원할 때입니다.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기후정의를 고민하는 예술인과 환경전문가가 만나서 토론하고, 부문을 넘어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안내서와 사례집을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 논의는 이러한 만남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92~103쪽

- 1차 <그리너 리오픈 툴킷 Greener Reopening Toolkit> 검토와 시사점⁶
- 2차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 The Sustainable Production Toolkit> 검토와 시사점⁷
- 3차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 Sustainable Production Guide> 검토와 시사점⁸
- 4차 <씨어터 그린 북 The Theatre Green Book> 검토와 시사점⁹
- 5차 종합토론 : 안내서의 방향과 내용

워킹그룹에는 연구진을 포함하여 공연예술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워킹그룹 논의의 ‘재료’는 우리보다 앞서 만들어진 (공연예술 창제작 관련) 총 4개의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참고 사례, 친환경 인증을 준수하는 별도의 환경정책이 있는 업체 목록, 그리고 지역과 공연예술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컨설팅, 워크숍 등)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가이드북이 현장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계산기와 같은 측정툴이나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 국가별-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내서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탄소배출의 양(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술의 가치와 역할의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그리너 리오픈 툴킷 Greener Reopening Toolkit 118~125쪽

7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 The Sustainable Production Toolkit 126~133쪽

8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 Sustainable Production Guide 134~143쪽

9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씨어터 그린 북 The Theatre Green Book 144~151쪽

* 그린 캡틴 Green Captain

‘그린 캡틴’ 프로그램은 BGA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볼만하다. ‘그린 캡틴’은 공연예술 관계자 중 희망자에게 BGA가 공연예술 관련 친환경적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공연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게 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800명 이상의 ‘그린 캡틴’이 브로드웨이를 포함, 지역 극장 및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119쪽 참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측정틀이나 정확한 데이터는 꼭 필요합니다. 각각의 실천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 눈으로(숫자로) 확인하는 것은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고민하는 공연예술 현장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공연예술에서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활동가이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린캡틴 Green Captain’ 프로그램, 컨설팅이나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 등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안내서

지금의 안내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공연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과학적 측정도구와 정확한 데이터까지 더해진다면 안내서와 사례집의 효용성은 더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첫 안내서와 사례집이 공연예술의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을 이야기하는 ‘재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기회이자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일차적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연예술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위기의 시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관계맺기가 절실한 현실에서 예술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3 기후위기 와중의 문화예술

: 문화예술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하여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

우리는 암울하고 마음이 급하다. 다가오는, 아니 이미 다가온 기후위기 앞에서도 너무도 조용하고 평온한 사회와 일상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한다. 기후위기의 과학적 원리와 현상들을 인식한다고 여기는 이들일수록 그럴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대안을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무엇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적잖이 알고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개인의 소중하지만 작은 실천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만들고 시행하는 법과 제도에만 기대어서도 안 된다. 많고도 많은 ‘그린 워싱’ 광고는 답이 아니다. 굶어 죽는 북극곰 사진을 걸어 놓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식을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무얼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무언가를 하는 많은 이들이 생겨났다. 인류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대해 몸으로 저항하는 ‘멸종반란’ 같은 운동도 보인다.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 같은 대중적 기후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22년 9월 24일에는 서울에서 3만 5천만 명이 모여서 “기후정의”를 외쳤다.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답답하다. 무엇보다 국회와 유력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립서비스조차 인색하다. 미디어에서도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다루는 뉴스와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양념 정도다. 기후위기의 과학, 기후위기의 정치, 기후위기 속의 삶,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천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들이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뭔가를 하자고 할 때, 그 뭔가는 막막하거나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탄소환원주의와 기후우울증을 넘어서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여러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후악당’ 기업과 체제의 공범 또는 묵인방조자일 수 있다. 더욱 찾아지는 극단적 기상 현상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희생자일 수 있다. 기후과학을 신뢰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기후부정론자’나 ‘기후회의론자’일 수 있다. 기후위기를 공부하고 유효한 대응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기후시민’일 수도 있다. 나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가 아닌 여러 기후위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기후부정론자가 아니라면, 기후과학이 알려주는 자명한 미래를 걱정하며 신속하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함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기후부정론과 회의론을 떨치고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보려 할수록 두 가지 대표적인 함정에 빠지곤 한다.

하나는 ‘탄소환원주의’다. 기후과학은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 농도와 직접 관련됨을 알려주며, 결국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기후를 안정화하는 핵심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것을 줄이고 대기 중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석탄과 석유를 덜 쓰거나 안 쓰고 재생에너지 전기로 바꾸는 게 첫째이고, 메탄 배출을 많이 하는 소고기도 끊어야 한다. 플라스틱과 시멘트 생산과 사용도 급격히 감소시켜야 한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한다. 그럼 우리는 숨도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일회용품 안 쓰고 에코백 들고

다녀 봤자 대기업하고 중국, 미국이 온실가스 평평 배출하는데 소용없는 것 아냐? 탄소 수치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도외시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냐? 모두 반박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공연 창작자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자신의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오락기의 두더지 머리를 쫓아가듯 두드려도 끝도 없는 두더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공연에서 몇 톤의 탄소배출을 줄였다고 기뻐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영화와 공연 프로젝트가 탄소배출을 그야말로 메가 부스팅하는 꼴을 보고 좌절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진지한 기후시민과 활동가일수록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함정이 ‘기후우울증’이다.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읽은 것들이 알려주는 기후위기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와 사회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고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우울증을 겪었다.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할 때, 우울감과 무력함은 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 테다.

이 두 가지 태도를 함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반응과 행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기후위기와 같이 원인과 영향의 측면들이 매우 다양할 때, 그것을 어떤 한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함정에 빠질 위험을 더욱 크게 한다. 위험 이전에, 더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더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공연예술의 창작과 제작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달리

받아들이고 어떠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의
다면성은 공연예술의 다면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창작자의 온실가스 감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연예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닐까?

기후위기를 느끼고 전달한다는 것

기후과학자와 기후활동가들은 최근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기후위기 담론과 운동의 접근 방식에
대한 몇 가지 반성을 배경으로 한다.

우선, 특히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대중들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올바른 데이터와 행동 방안을 알려주기만
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간단히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속성을 갖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 중 하나다. 기후위기가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가져올 상황은 지역마다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나 집단마다 다르며,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도 지식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매우 종합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맥락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후위기의 실체는 개인에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리고 각자의 행동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효능감이 없다면 사람들은 굳이 결과가
불확실한데 수고스럽기까지 한 행동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까지 다수의 기후 담론은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미래를 제시하며 압박하거나, 추상적인 원칙과 파편적인 행동
제안을 혼란스럽게 던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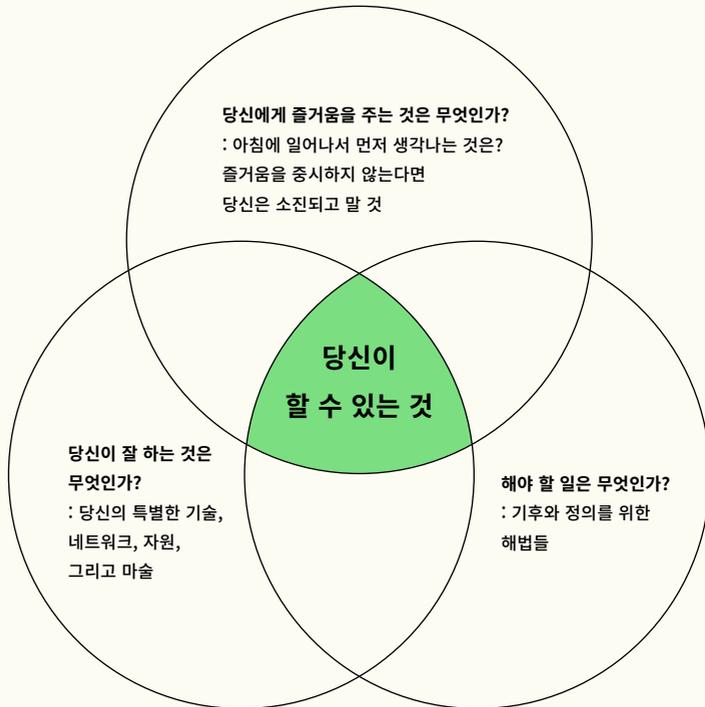
결국 기후위기의 양태와 탄소 감축의 아이টে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분명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불확실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풍부한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만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실한
실체와 가치 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인도의 문인
아미타브 고시가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자 상상력의
위기이다”라고 갈파한 것은, 이런 전례 없이 거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후위기라는 현상에 우리가 다가가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문화적, 나아가서 예술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후위기의 인식뿐 아니라 전달에서도 우리는 예술의 힘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소통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리베카 헨틀리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을 말한다.
물리법칙은 질서정연하지만 인간은 변덕스럽고 인간에게는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과학 그
이상의, 사회적 현상이다. 과학자들의 모니터와 그래프가
줄 수 없는 여러 감정과 이미지들, 즉 공포뿐 아니라 놀라움,
슬픔, 분노, 아픔, 죄책감 그리고 기대, 희망, 사랑까지 모든
것이 기후위기에 더 다가서게 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느낌들이다. 그 어느 감정을 배제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엮어냄으로써, 아마도 예술은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한
차원이자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2022, 아야나 엘리자베스 존슨 · 캐서린
K 월킨스 엮음, 나뭇잎스)은 기후위기 앞의 진실과 용기 그리고

해법을 말하는 60편의 글을 묶고 있다. 이 책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다이어그램은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집합으로 보여준다. 첫째, 기후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들이 있다. 그런 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분명한 탄소 감축 방법들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당위적인 지침만으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그것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둘째, 기후위기 앞에서 당신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주 기발하거나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당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 네트워크, 자원 또는 마술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런 기후 행동들은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생각나는 얼굴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과 당신의 기후행동이 연결될 때 지치지 않고 더욱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이 책에 글을 실은 건축가는 기후위기에 적응력을 갖고 도시를 살리는 생태 건축을 실험하고 있다. 영화 제작자는 기후를 염려하는 내용과 방식의 시나리오를 다루어보려 애쓴다. 패션모델은 패스트패션을 이용하지 않는 대안적 패션 쇼와 모델 에이전시를 시도하고 있다. 농민은 땅을 살리는 순환 농법을 모색하고, 언론인은 주류 미디어의 관성을 깨고 기후변화를 제대로 전하는 기사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우울이 당신만의 일이 아님을 일깨우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야 함을 일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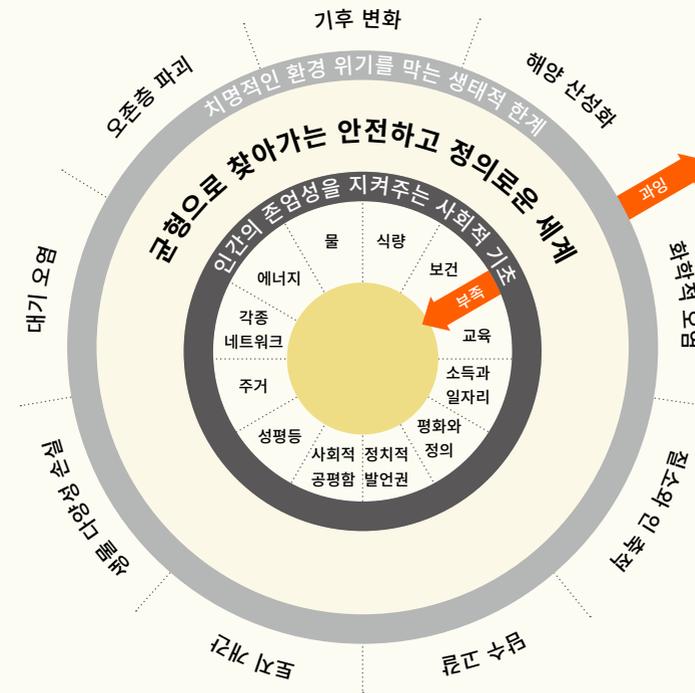
얼마 전부터 해외의 공연예술계에서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기획과 지침들이 시도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기후 비상사태를 다루는 연극, 탄소 감축을 고민하는 영화와 공연이 모색되고 있다. 앞의 그림과 겹쳐보자면, 공연예술이 기후와 정의를 위해 고려하고 시도할 수 있는 해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탄소 감축 해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공연예술이 잘 할 수 있는, 예술 본연의 특별함일 것이다. 사람들과 같이 분노하고 고민하고 쓰러지면서도 일어나고 용기를 북돋는 일이 아닐까? 공연예술의 종사자와 관객들 모두가 지치지 않고 자존감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식일 때,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운 길이와 깊이의 기후위기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할 수 있는 공연예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제안한 도넛경제학(Doughnut Economics)*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넛 모양의 영역을 보여 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기초인 안쪽 고리와 지구의 생태적 한계인 바깥 고리 사이의 영역입니다.

도넛경제학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기초가 단단하면서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도넛경제학’을 ‘도넛미학*’으로 바꿔 보면 어떻게 될까요?¹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도넛 모양 영역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안내서를 읽는 도중에, 아니면 모두 읽고 난 뒤, 혹은 더 많은 생각 이후에 언제든지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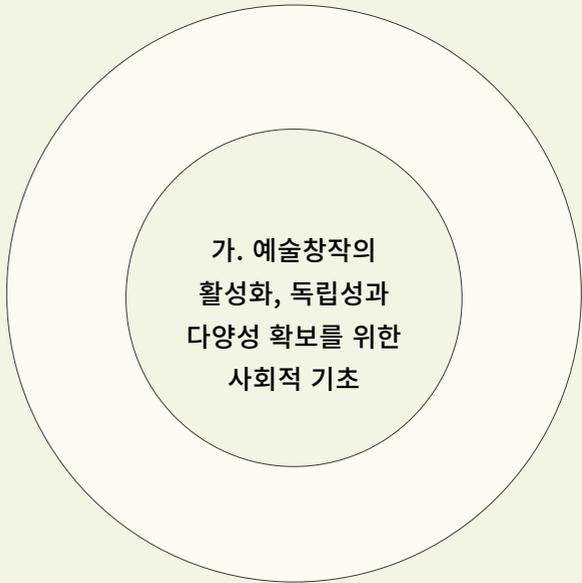
- *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경제학에 대해 궁금하다면,
 - 저널리스트 안희경이 케이트 레이워스를 인터뷰한 한겨레의 기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5614.html
 - 케이트 레이워스의 TED 강연 (한글자막과 한글녹취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youtu.be/Rhrcbcg8HBw>
 - 2021년 한국농림기상학회지에 실린 김준의 <도넛경제학> 서평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108148712819.pdf>

¹ 이러한 유비는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제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접근에 문제가 있다면 김현우 소장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므로 전적으로 연구진의 잘못입니다.

*** 도넛미학 _ 공연예술활동**

기후위기 대응 활동가, 공연예술부문 현장 종사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예술창작을 위한 사회적 기초에 해당하는 안쪽 고리에는 미학적 추구에 관한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 다음으로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제작을 준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정된 물리적 공간, 네트워크, 예술창작 관련 정보, 관객, 물리적 이동성(모빌리티)을 언급했습니다. 바깥쪽 고리에 해당하는 공연예술창작의 주요한 생태적 한계로는, 스태프의 노동권과 돌봄,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화, 네트워크 등을 꼽았습니다.

**나. 예술창작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생태적 한계**



**가. 예술창작의
활성화,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기초**

도넛의 안쪽 고리엔 예술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지키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를, 도넛의 바깥쪽 고리는 예술창작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태적 한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가능하다면 동료들과,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지를 적어 보세요. 당신과 동료들이 생활하는 고유한 맥락에서의 기후위기와 공연예술의 관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 이어질 이 안내서의 제안은 그 그림을 바탕으로 두고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안쪽, 바깥쪽 고리의 목록을 모으고 합의해 가면, 기후위기와 공연예술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개의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지할 수 있는 같은 가설의 처마 아래 모인 동료들과 함께 이 안내서의 안팎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행동과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참고 사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예술
-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기후시민’으로서 자각한 예술인의 창작 작업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술 행동
-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탄소절감에 집중하는 활동
- 탄소배출량만이 아닌 폭넓은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함께 고려하는 예술 활동
- 기후위기를 자신의 미학적 엔진으로 삼는 작업

대부분의 실제 사례는 위 유형 중 하나에만 해당되기보다는 여러 유형에 걸친 다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연극단체인 피그풋 시어터 Pigfoot Theatre의 창작 활동은 ‘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탄소절감에 집중하는 활동’이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기후위기와 시민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점차적으로 ‘기후위기를 미학적 엔진으로 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 국립극단의 <기후비상사태:리허설>은 ‘기후시민인 예술인의 창작 작업’으로서 ‘창제작 과정에서의 탄소절감’을 몸소 실험하며 ‘미학적 엔진으로서의 기후위기’에 다가가 보려한 시도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 사례를 읽는 관점**

사례 소개는 불가피하게 다소 이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례를 그대로 ‘교사’삼기 보다는 ‘동료’로 삼는 방식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벤치마킹의 자세로 사례를 바라보게 될 때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성과와 성취’가 부럽다고, 대뜸 ‘형식적인 결과물’만 가져오려 하는 일이죠. 간과되는 건 ‘관계와 노력’입니다. 놀부가 제비 다리를 고친 흥부의 형식적인 결과만을 따라했죠. 하지만, 성과와 성취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형식적 결과물 이전을 살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과물 만큼 잘 보이지도 않고 읽어내기도 수고롭지만, 주어진 사례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결과물 ‘이전에’ 있지, 결과물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축된 탄소배출량이 아니라, 그들이 실험에 나서게 된 우연한 계기, 토대와 제도적 환경, 조직의 운영, 관객과의 관계를 더 들여다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II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

- 1 안내서의 입장
- 2 안내서의 제안 영역과 기본 방향
- 3 공연 프로듀싱
- 4 세트와 무대 제작
- 5 조명, 음향, 영상
- 6 무대소품과 의상, 헤어, 메이크업
- 7 공연 운영과 관객 커뮤니케이션

안내서의 입장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나눠라.

If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drum up the men to gather wood,
divide the work and give orders.
Instead, teach them to yearn for the vast
and endless sea.

– 생텍쥐페리 Antoine de Saint-Exupery

기후위기에 더 많은 공연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공연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가해 활동일 수 있으니 자제되거나, 조정되거나, 선별되어야 한다는 어떤 형태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술 활동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기여는 더 오랜 역사의 검증을 버텨 왔으니까요. 예술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인 안쪽 고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의 한계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넘어서지 않도록 창제작 활동의 예술적 비전과 재무적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예술적 비전과 재무적 목표를 지속가능성의 기반 위에 쌓는 방식입니다.

하나 이상의 위기를 동시에 대응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팬데믹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위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불평등, 젠더, 장애인 접근성, 팬데믹, 이념 양극화 등에서 드러나는 위기는 기후위기의 자매, 형제입니다. 공연예술 창제작 현장은 창제작 활동의 지속가능성 토대에 위협이 되는 모든 위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위기 중 우선순위를 골라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과정을 한 번씩, 한 번씩 닦아 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여성 인턴 한 명의 추가 업무로 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전부는 아니다

* 탄소중립
Carbon-neutral

탄소배출량을
탄소흡수량만큼
낮추어,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길의 어두움에 대처하기 마련된 좋은 호롱불에 가깝습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호롱불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롱불을 버리고 무작정 나서는 길은 무모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연예술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중립으로 좁힌 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과소평가해 마련한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향하는 길도 동료도 잃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돈을 쓴다

하나 아닌 여럿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물리적 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위기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일과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자원의 투입처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나 친환경 인증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된 물건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대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발품을 팔고,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효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을 나누고, 함께 일할 더 많은 동료를 구하는 것, 모두가 사람의 일입니다. 자원은 사람에 먼저 투입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문제 풀이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잘 정의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해 잠정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더 좋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정의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며 답을 찾아가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춤하거나 냉소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배출량 감축 순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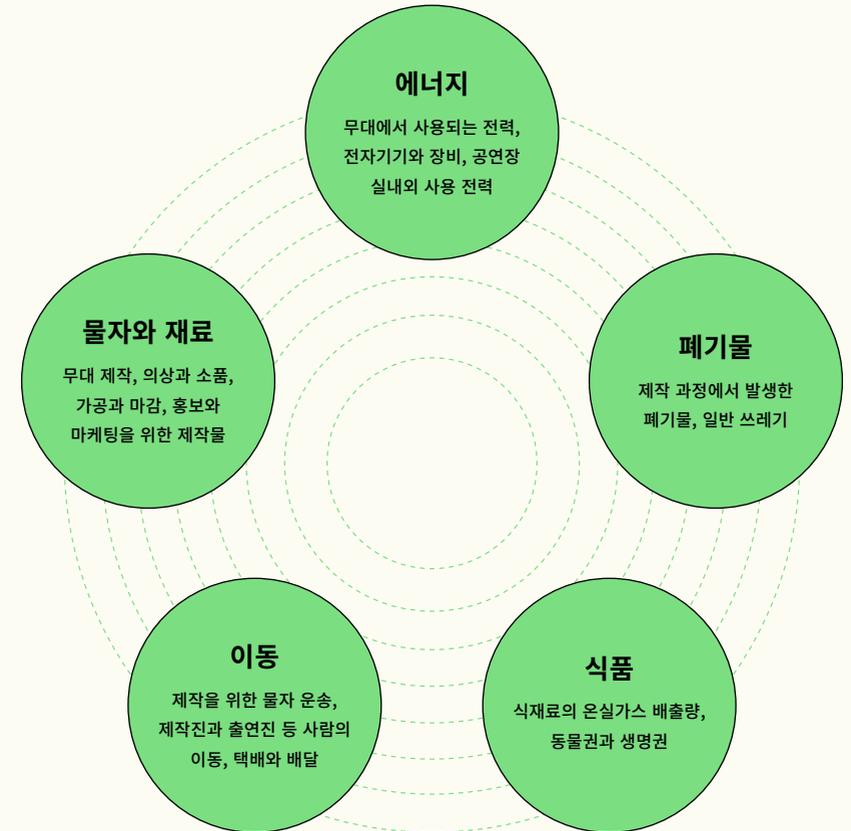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점에서만 보면 공연예술의 영향은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은 공연을 찾는 관객의 운송과 공연장의 에너지 소비에 기인합니다. 공연의 창제작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더 작습니다. 그렇다고 공연예술 창제작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위기 대응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인 대응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성을 따져 정해 둔 우선순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 있지만, 당신에겐 당신이 '하고 싶고', '해 볼만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안내서는 잘해야 안내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안내서에 포함된 제안은 '지원의 조건'이나, '평가 항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지원'과 '평가' 같은 개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이전에 기존의 지원과 평가 관련 제도, 행정 절차에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 중심의 자원 배분 원칙이나, 친환경제품 구매, 재사용, 재활용을 감안한 회계와 정산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내서의 제안 영역과 기본 방향

공연예술 창제작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5개의 영역



지속가능한 창제작을 위한 안내의 6가지 기본 방향

- | | | |
|----------|--|--|
| 1 |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기
Reduce | 재활용되지 않거나, 많은 자원의 소비로 얻어지는
재료는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2 | 다시 사용하기
Reuse |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되풀이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고르고, 구하고, 비축합니다. |
| 3 | 용도를 바꿔 사용하기
Repurpose | 기존의 재료 중 손을 봐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활용합니다. |
| 4 | 재활용하기
Recycle | 버려지는(버려질) 폐기물에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탐색해 사용합니다. |
| 5 |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Localise | 위의 네 가지 방향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일손을 포함해 가능한 지역자원을 활용합니다. |
| 6 |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논의와 실행 Collaborate | 위의 다섯 가지 방향의 구체적 적용은 모든 구성원이
논의에 참여해 협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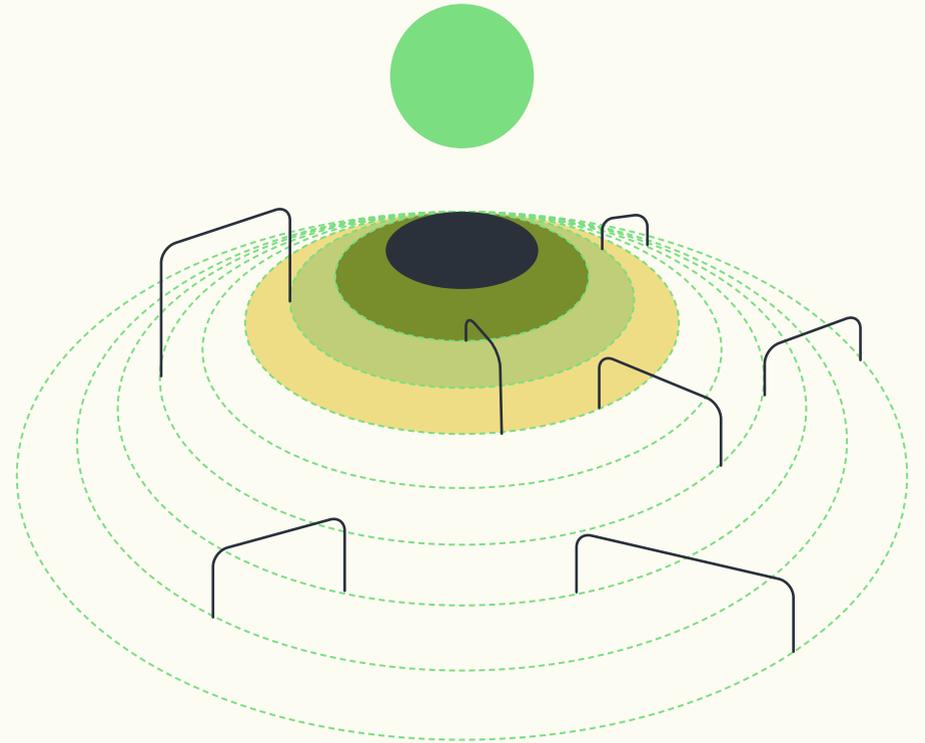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창제작을 위한 안내의 6가지 기본 방향

공연 프로듀싱

-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A.SF_비거니즘의 세계
- #위워크인투 #코끼리 택시
- #이성직 #sf식당
- #컬렉티브 텡굴 #꿈의 방주:Hunger Stone
-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 #춘천마임축제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연을 꾸려가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공연의 창제작을 위한 자원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일은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을 축내는 사치 정도로 여겨지기 쉽죠.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고 해도, 막상 실행에서는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유가 생기거나, 여건이 조성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창제작 과정의 토대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예술적 성취에 대한 타협이 아닙니다. 예술적 비전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① 사전제작 단계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예술감독, 프로듀서, 연출 등과 같은 리더십 그룹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제작 과정의 첫 단계부터 제작을 위한 ‘환경 지침 environmental policy’*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창제작 과정 전체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 방향과 방법을 정리한 지침입니다. 리더십 그룹이 중심이 되어 만들 수도 있고, 보다 많은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환경 지침은 단체 내부는 물론 가까운 동료들과도 공유하시길 권합니다. ⇨ 가능하다면, 환경 지침과 함께 지속가능성 목표를 논의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평가가 가능해 집니다.

지속가능성이 창제작 과정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창제작 과정의 사전제작 단계가 종전보다 더 길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추가된 기간에 대한 연출, 프로덕션 매니저, 무대 매니저의 인건비 반영도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처음 도입하는 경우에 더 많은 시간 소요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외의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기간은 2주에서 2개월 정도입니다.

*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자료를 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안하고 싶은 동영상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https://youtu.be/fYmoV4dEh3Y>
- EBS 클래스e ‘조천호의 기후 위기 거대한 전환’ 강연 <https://youtu.be/xaSn-K-vDeA>

* 금감함이 여전하시다면,

-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2020)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톰 리빗카넥 지음, 흥한결 옮김. 김영사
-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2022) 에밀리 오티, 엘렌 바스 외 지음, 김현우, 민정희, 박미숙 옮김. 나뭇잎스
- <한국의 논점 2022(중 2부 2장 기후위기)> (2021) 체진원 외 지음, 강양구, 장은수, 한기호 엮음. 북바이북

* 환경 지침 Environmental Policy

지속가능성 관련 대응에 있어 단체·기관이 가진 목표, 참여자의 범위, 대응 활동 영역, 권한과 책임, 대응을 위한 공동의 약속(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목표 수준 제시) 등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문서입니다.

단체·기관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을 조직 내부에서 합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이나 구성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보려면 영국 국립극장의 환경 지침 정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tionaltheatre.org.uk/policies/environmental-policy/>

연출, 디자이너, 아티스트는 물론 공연장, 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할 때 환경 영향 관련 사항을 함께 논의해 상호 이해와 동의를 확보합니다. ‘환경 지침’이 있다면 활용하세요.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크루의 직무 기술과 계약에 환경 영향 관련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서 각자 적절한 역할을 나누어 가집니다.

창제작에 필요한 모든 물자의 조달과 관련해 ‘지속가능 조달 지침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을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사용, 재활용을 비롯해 환경 영향을 줄이며 물자를 구하기 위한 잠정적인 원칙과 방향을 모든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입니다.

무대세트, 의상, 소품 등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디자이너와 협업해 창의적인 지속가능 해법을 탐색합니다. 환경 지침을 적용해, 모든 디자인 관련 회의에 환경 지속가능성이 주요 목표가 되도록 합니다.

회의 자료나 대본은 종이 문서 없이 디지털 문서를 이용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종이 문서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종이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예외적이고,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속가능 조달 지침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된 환경 지침과 동일한 성격입니다. 다만, 물자의 조달 전반에 걸친 사항에 한정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담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제작 관련 물자를 구매, 대여, 입수하는 과정에 있어 단체·기관이 가진 목표, 참여자의 범위, 대응 활동 영역, 권한과 책임, 대응을 위한 공동의 약속(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목표 수준 제시) 등으로 구성된 짧은 문서입니다.

* 사람들은 점차 인쇄물을 출력하지 않고 디지털화해서 정보를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물리적으로 다른 원재료를 가공·합성한 것이 아닌 만큼 생태 발자국도 인쇄물보다 적을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유통·축적 또한 생태 발자국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1MB의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할 때 11g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데이터가 보관되는 물리적 하드웨어인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200~250TWh입니다. 정보를 디지털화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다면 훨씬 더 나아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생태 발자국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희토류, 리튬 등 상당량의 희귀 금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이 대규모 광물 채굴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과 노동·인권의 착취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랑기보다 끊임없이 하자는 의미로 이해될 바랍니다.

* 스크립테이션은 TV프로그램 제작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만큼 대본의 디지털 관리와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앱입니다.
<https://scriptation.com/>

스테이지 라이트는 브로드웨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대본은 물론 배우의 동선, 소품과 무대의 이동, 조명과 음향 관련 사항 등도 통합해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s://www.stagewritesoftware.com/>

두 앱 모두 유료이며, 현재로선 한글 사용과 관련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전제작(리허설 포함) 중 무대의 움직임을 담은 문서를 만드는 데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테이션Scriptation’, ‘스테이지 라이트Stage write’와 같은 전문 앱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이에 수기로 서명해 확인하는 절차에는 QR코드같은 디지털화된 방법을 도입합니다. 휴가신청서와 같은 작성양식은 물론, 연락처 모음이나 리허설 일정 같은 정보를 알리는 데에 웹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이는 환경 영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접촉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② 리허설과 제작 단계

당장 사용하지 않을 조명을 끄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휴식시간이나 공연 사이 먹거리를 출연진이 각자 다회용 용기를 준비해 담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회용 용기를 제작해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추후 굿즈 형태로 판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물의 경우 일회용 물병보다는 식수대를 운영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모든 제작 관련 회의에 안건으로 항상 포함되도록 합니다. 제작 과정의 우선순위를 강조해,

한번쯤 이야기 나누고 사라지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논의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속가능성을 자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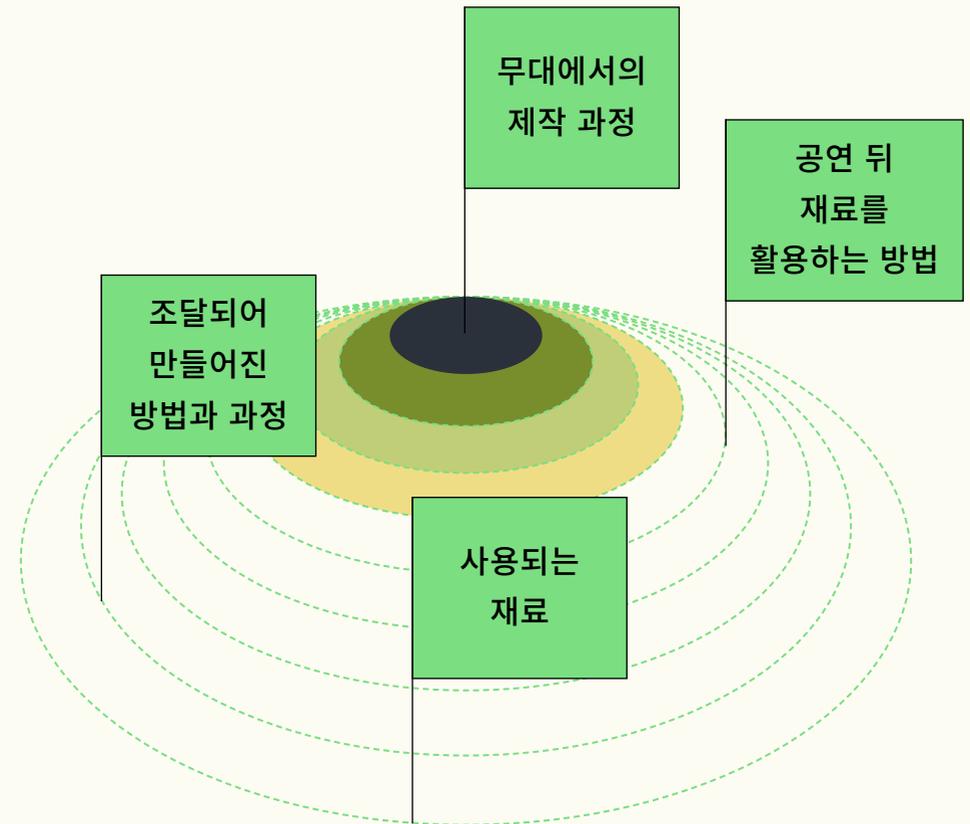
③ 사후제작 단계

제작 과정의 지속가능성 계획의 달성 정도, 다양한 구성원의 경험과 판단, 어려움 등을 논의해, 향후 작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공유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작 경험과 새롭게 배운 것을 공연계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를 권합니다.

4 세트와 무대 제작

-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A.SF_비거니즘의 세계
- #이성직 #sf식당
-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세트와 무대 제작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핵심 요소는 4가지입니다



V 무대 제작과 관련된 환경 영향의 상당 부분은 디자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자인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환경이거나 재활용된 재료로 향후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작 방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재활용과 친환경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망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V 무대 제작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새 자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가 논의를 시작하기 가장 효과적인 지점입니다. '50% 이상의 새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재 조달과 관련된 예산을 구성할 때 '(기 비축된)재고 자재', '재활용 자재', '신규 자재'의 독립된 열을 추가합니다. 비축해 둔 재고 자재를 사용할 경우, 새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록함으로써 재고 자재 활용의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구매한 중고 물건인 재활용 자재의 경우 조달에 소요되는 일손과 운송 비용을 자재 비용에 포함시킵니다. 신규 자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향후 재사용할 자재인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V 4R(Reduce, Reuse, Repurpose, Recycle)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 해외 사례의 경우, 무대 재료의 재활용, 재사용 비율을 높여 절약된 예산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국내 상황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무대 매니저가 일찍 활동을 시작해 관련된 공급업체와 물품을 사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고용 기간에 대한 인건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 공쓰재는 “공연 후 쓰고 남은 무대 소품·세트 재활용 커뮤니티”의 줄인 말로 페이스북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 중계 서비스입니다. 스텝 서울이 운영하고 있고, '나누미'와 '구하미'의 무상거래, 현장수령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www.twr.or.kr/>

피스오브피스(Piece of Peace)는 국제평화상사라고도 불리는 자원 순환에 기반한 제작, 디자인,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창작작 과정에서 나온 자투리 자재를 기부 받고, 이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자투리잡화점' 사업과 '유기사물구조대'라 불리는 서울아까워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pofpstudio.modoo.at/>

무대곳-간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공연기자재 공동이용플랫폼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tageotgan.co.kr/>

V 공쓰재, 피스오브피스, 무대곳-간 등의 공연예술 전문 재사용 매개 서비스*나, 서울재활용센터 등과 같은 재사용, 재활용 전문기관을 이용합니다.

V 무대 자재를 비축해 두면, 이후에는 보통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재의 비축을 평가절하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신규 자재로 작업할 때의 비용에 기초해서 비축된 자재에 가치를 화폐화해 부여하면, 해당 공연 예산에서 재고 자재의 사용을 파악해 신규 자재 대비 재고 자재의 비용을 측정할 수 있고, 공연 규모에 대한 더 정확한 지표 산출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창고의 확대 운영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V 목재를 우선 사용하고 금속이 필요할 경우, 재활용 금속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의 활용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재 중에서도 나왕이나 열대의 견목재, 합판은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DF도 인체 유해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www.greenproduct.go.kr/gmc/main.do

한국공기청정협회 검색시스템 www.kaca.or.kr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_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친환경 정보시스템 152~159쪽

V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비율이 낮은 저독성 수성 페인트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페인트 폐기물과 재사용가능한 세척수로 분리되는 세척 제품을 사용합니다.

V

목재나 도료뿐만 아니라 종이를 비롯한 다양한 물자에 친환경 인증 제품을 활용합니다.

V

무대 세트는 사후 분해와 재사용을 염두에 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V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해 폐기 처분 비용을 절약합니다.

조명, 음향, 영상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A.SF_비거니즘의 세계

#춘천마임축제

조명

V

모든 조명 크루와 관련 업체에게

조명 전력 수요를 최소화할 것이고, 무대나 리허설에서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공유합니다. 하향식으로 전달하기 보다 사전에 이를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지침’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V

무대에 사용되는 조명의 예상 전력 소비량을 사전에

계산해 기록합니다

전력 사용량을 줄일 목표를 함께 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명의 전력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나 프로그램의 도입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V

사용하지 않을 때,

조명이나 장비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크루 중 선임 1인을 정해 사용하지 않을 전원을 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V

조명 렌즈와 반사판을 일정 주기로 닦습니다.

V

PVC 테이프의 대체재를 활용합니다

PVC 테이프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할 뿐 아니라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벨크로, 번지 코드, 패브릭 타이와 같은 대체재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V

LED 조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조명 자체의 에너지 절약에 더해 낮은 발열로 공조 비용과 탄소배출의 절감을 가져오고 색 표현을 위한 질 필터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대 조명 만이 아니라 분장실의 거울 조명, 리허설과 기술진을 위한 작업등, 공연장 조명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향과 영상

V

음향, 영상에 참여하는 크루와 관련 업체에게

음향과 영상의 전력 수요를 최소화할 것이고, 무대나 리허설에서 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공유합니다. 하향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지킴’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V

사전 논의를 통해 음향과 영상 장비의 사용 전력 제한 수준을 설정하면, 저에너지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V

해당 공연장에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파악해, 새 장비 대여에 앞서 이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V

장비를 대여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 내 공급업체를 찾아 운송 받는 것이 좋습니다.

V

모든 이동형 장비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교체시기를 알 수 있도록 사용 시작 날짜를 레이블에 기록합니다. 충전할 수 없는 일회용 배터리 구매에 제한을 둡니다. 음향 렌탈 패키지에 충전 스테이션을 추가하고, 마이크나 손전등과 같은 여러 용도에 사용할 충전식 배터리를 구비합니다.

V

사용하지 않을 때,

장비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크루 중 선임 1인을 정해 사용하지 않을 전원을 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V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문제가 되는 시기라면,

사용 전과 사용 후 정기적으로 마이크와 헤드셋, 무전기 등을 소독합니다. 생분해되지 않는 소독 티슈보다는 차아염소산염 성분의 친환경제품이나 70%의 알코올을 적신 천을 활용합니다.

무대소품과 의상, 헤어, 메이크업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위워크인투

#코끼리 택시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V

무대 소품의 경우 일반적인 중고용품 플랫폼뿐만 아니라

공쓰재, 피스오브피스, 무대곳간 등의 공연예술 전문 재사용 플랫폼이나 서울아까워센터, 서울새활용센터 등과 같은 재사용, 재활용 전문기관을 이용합니다.

V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

연습실에서는 처음부터 소품을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실제 소품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엔 배우가 사용하는 매 사이사이 일회용 소독티슈로 닦기보다는 소독제를 분사해 소독합니다.

V

의상과 무대에 사용되는 섬유, 천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환경 이슈와 사회적 이슈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 재배와 표백 문제, 제조 과정의 탄소 발생과 물 소비, 섬유 노동자의 윤리적 노동 문제, 버려지는 의류 쓰레기 등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V

의상에는 친환경 인증 받은 섬유를 사용합니다

가급적 드라이 클리닝이 필요 없는 소재를 구매합니다. 의상의 세탁온도는 30도가 적절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40도의 고온 세탁을 권장합니다. 세탁 시엔 가능한 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막아주는 세탁망을 활용합니다.

V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낡은 의상이나, 천 조각, 남은 원단은 관련 교육 기관에 기증하거나, 재활용 플랫폼에 연결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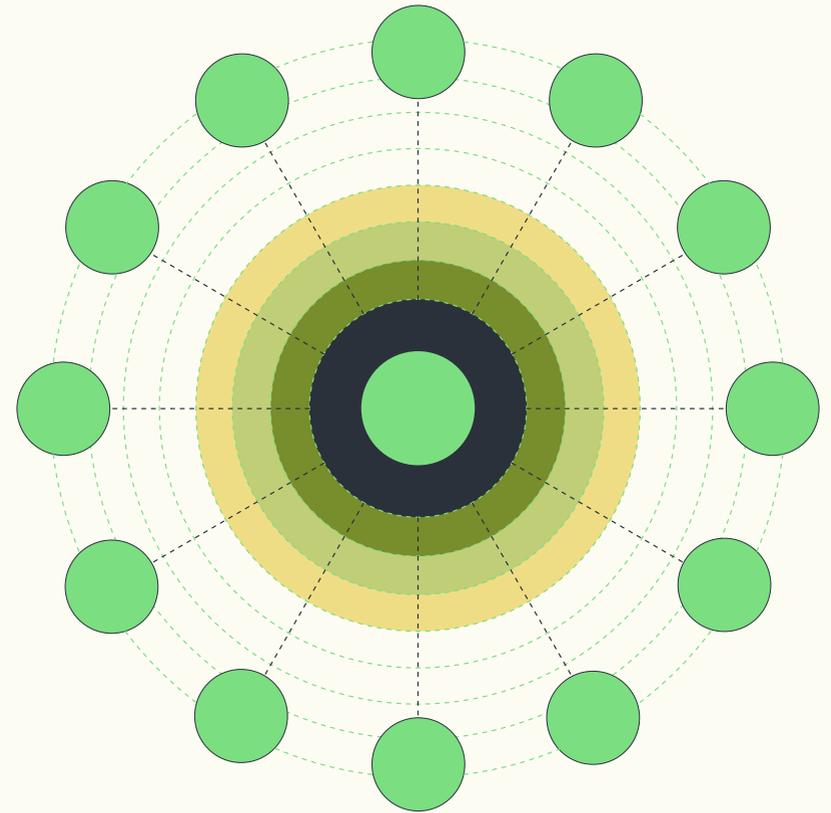
V **화장품, 샴푸 등은,**
전문화된 재활용 프로그램을 찾아 재활용하거나 다회용기를 활용해 리필 사용합니다. 기초 화장품의 경우 ‘알맹상점’을 비롯한 많은 제로웨이스트숍을 중심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마음들의 플랫폼,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 almang.net

7 공연 운영과 관객 커뮤니케이션

-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A.SF_비거니즘의 세계
- #이성직 #sf식당
- #춘천마임축제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속가능한 창제작을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만큼이나
이를 알리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V 출연진은 지속가능한 창제작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배출하는 탄소배출의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외에도, 공연의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를 알리고, 관객의 동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V 해당 공연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알리는 것 외에도 공연을 찾는 관객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객의 이용 교통수단별 탄소배출량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라면 카셰어링,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거나, 공유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간단한 굿즈나 추후 10%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 활용하는 등의 접근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V 내부 구성원을 위한 음식을 케이터링 할 경우, 비건 지향 식단을 포함시키고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논의를 알리고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V 프로그램북을 대량 제작하기 보다는, 전자문서 형태로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대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사안이 있다면 손 소독제를 함께 비치 합니다.

* 이 안내서는 웹용 기반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의식하면서도 시각적 흥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색상과 레이아웃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자문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디지털미디어연구소장
이재욱

1. 디지털 탄소발자국
디지털 기기는 와이파이, LTE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 이는 데이터 센터까지 서버로 연결, 가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또한 데이터 센터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려면 서버를 냉각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이산화탄소 발생.

- 2.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과 효율적인 네비게이션 : 디자인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므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단순하고 찾기 쉽게 디자인.
 - 밝기 : 모니터 밝기를 100%에서 70%로 낮추면, 모니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감소.
 - 색상 : 색상은 O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의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침. 검은색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빨간색 < 녹색 < 파란색 순으로 에너지 사용이 높으며, 흰색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 배경을 완전 흰색이 아니라 미색을 사용 하는 것이 에너지 세이브.
 - 사진, 그림 : 사진, 그림의 사용은 페이지 용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요소임. 사용하는 이미지가 많고 이미지 파일이 클수록 전송 과정에 더 많은 데이터와 에너지가 필요. JPEG, PNG, GIF와 같은 래스터 파일 형식 대신, SVG(벡터 형식) 그래픽을 선택한다면, 이미지 크기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됨.
 -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 : 음악과 비디오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
 - 개인정보 보호모드 설정하기 :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데이터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회사로 전송됨. 개인정보 보호모드(또는 시크릿모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차단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게 함.

3.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디지털 기기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769>
[환경부] 스마트폰이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디지털 탄소발자국
<https://blog.naver.com/mesns/221632424922>
[websitecarbon]웹사이트 탄소 계산기
<https://www.websitecarbon.com/>
[그린더웹] 모니터에서 표현 되었을때 에너지 효율적인 컬러 팔레트
<https://greentheweb.com/energy-efficient-color-palette-ideas/>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가이드북 I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

발행인 정병국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제출일 2023. 1. 31.
발행일 2023. 2. 28.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연구 수행기관 문화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준영(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김도형, 김미소(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협력연구원 김재상(문화연대 활동가), 신영은(시민자치문화센터 활동가),
이윤서(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편집디자인 신영은

본 연구는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